

돌하르방은 석궁왕(石弓王), 쿠빌라이 대칸의 탐라도 환생석 -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을 중심으로*

주 채 혁**

■ 목 차 ■

- I. 서론
- II. 본론
 - 1. 다싱안링(大興安嶺) 스텝의 석궁왕과 탐라도(耽羅都) 돌하르방
 - 2.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과 유라시아 스텝로드의 시슴돌-석궁왕 맥락의 발전·결실
- III. 결론

<국문요약>

유라시아대륙에 석기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석인상 유적들이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철기 수용과 더불어 수행된 스키타이

* 본 논문은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몽골학회, 2016)에 발표한 글을, 그 후 철기 수용과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사의 맥락에 각별히 주목해가면서 재정리해본 것이다. 금세기 정보화~유전체학시대의 격랑 속에서, 구태를 벗어나 과감히 연구시공의 범주를 넓히고 더욱 깊이 천착해 그렇게 해볼 필요성을 특별히 절감해서이다.

** 전 강원대·세종대 사학과 교수. 국제몽골학자협회(IAMS) 한국 측 집행위원.

이 ‘기마 양유목혁명기’를 전후해 일반 초원(Grass land)이 아닌 기마 양유목지대인 유라시아 스텝(Steppes)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관계 석인상 유적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비유목지대 탐라도(耽羅都) 목마장의 석인상 유적에 초점을 맞추어 돌하르방 문제를 천착해보았다.

유라시아의 유목민들이 말을 탄 주된 이유가 스텝의 양유목혁명 수행을 위해서였다. 팩스 몽골리카를 이룩한 이들의 ‘기마사술’이라는 가공할 유목무력도 물론 이에서 비롯됐다. 돌하르방이란, 여러 명칭개념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된 Харвах+vang=HarBavang(弓王)으로 논자 나름으로 본고에서 그 개념을 정의해보았다. 뒷날 알탄 칸(1507년~1582년)은, 자신이 ‘쿠빌라이 대칸’의 환생임을 자칭했다. 그렇듯이 쿠빌라이 대칸이 팩스 몽골리카를

완성하고 탐라국에 해양제국 몽골황궁 구축을 구상-시도했던 흔적이 다소간에 확인되기도 하는 만큼 서북 다싱안링 고을리칸(弓王: 東明-Tumen) 석인상-‘석궁왕’처럼 서남 다싱안링 다리강가 스텝의 석인상도 중심인물 석인상을 위시해 배치되고 있는 몽골의 기원지대 관행으로 보아, 제주도 돌하르방이 이를 조형(祖形)으로 삼아 쿠빌라이 대칸 석인상을 중심으로 애초엔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 후의 돌하르방이 팩스 몽골리카 탐라 해양황궁에 환생해온 그 참 주체인 쿠빌라이 대칸의 민속 신앙적 환영의 시대적 구상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래, 구체적인 역사인물인 팩스 몽골리카의 실제적인 구현자 대원제국 태조 쿠빌라이 대칸의 스텝제국의 확충 비전이 투영된 해양 중 몽골궁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탐라도 해양궁성의 아이콘조석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처 못 다 이룬 그의 꿈이 배어난 자아상으로서의 석궁왕상(石弓王像)과 그 환영의 각 시대 시류를 따른 구체적인 구현이, 탐라도 돌하르방의 실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비유목지대인 탐라도 목마장에서의 ‘몽골스텝 양유목’은 한낱 허구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유목의 적지가 아닌 이곳에서 스텝양 유목혁명을 유발하기 위한 목마는 실은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인도의 거대한 칭기스칸 몽골제국계 이슬람제국 무굴제국(Mughul Empire ; 1526~1857)도 끝내 몽골스텝 본지(本地)의 수복을 이루지는 못했다. 본질적으로 목마가 스텝양유목과 관계가 없다면 몽골말의 유목적 전투력도 지속적인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달리 말해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때와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라 하겠다.

원명(元明)~여선(麗鮮) 역성혁명과정이나 산업혁명 이후 만청(滿淸) 제국과 신성로마제국 등의 모진 꺾박과 농락 중에 이런 특정 생태 적응적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시류를 따라 코믹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자신을 성형수술해온 터이지만, 탐라도 돌하르방은 2000여 년에 걸친 철기 수용 이래의 ‘황금빛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의 총체적 열매로서의 끈질기고 슬기로운 세계사적 차원의 초인적인 난숙한 예술적 품모를 기나긴 세월 온갖 풍상 속에서도 아직 적지아니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석인상, 석궁왕(石弓王), 돌하르방, 탐라국(耽羅國), 탐라도(耽羅都), 흑해북안 대스텝, 스키타이의 철기 기마 양유목혁명, 팍스 몽골리카, 쿠빌라이 대칸, 도로노드 아이막 할힌골 슴 송크(紅) 타반(五) 툴로고이(頭), 고올리칸(東明聖王) 석인상, 다리강가 스텝, 홍산 문화권, 법화사지(法華寺址)의 용봉문(龍鳳紋) 막새기와, 원세(元世), 상도 고성지(上都 古城址), 생명체 유전자 지도.

I. 서론

본고에서 돌하르방이란, 여러 명칭개념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된 Харвах+vang=Harbavang(弓王)으로 논자 나름으로 개념정의 해본 석인상만을 지칭한다¹⁾. 시대적으로도 유라시아대륙에 석기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석인상 유적들이 있지만, 철기 수용과 더불어 수행된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기를 전후해 일반 초원(Grassland)이 아닌 기마 양유목지대인 스텝(Steppes)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관계 석인상 유적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비유목지대 탐라도 목마장의 석인상 유적들만 살펴보려 한다. 연구의 초점은 물론 콕스 몽골리카 돌하르방제작기술의 총화로 이룩된 것이라 할 탐라섬 소재 ‘탐라도(耽羅都) 돌하르방’에 맞추고 있다. 장차 이루어지리라 본 몽골해양제국을 향한 대원제국 태조 쿠빌라이(Kublai) 대칸 당시의 꿈이 서려있어보여서다²⁾.

기원전 7~8세기경에 아나톨리아반도를 통해 다뉴브~우크라이나 대별판과 흑해북안 대스텝에 철기가 수용되면서, 유목가축 순록(Reindeer)보다 단위면적당 유목생산력이 근 10여배에 이르는 유목가축 양(Sheep)유목 생산이 보편화되는 일대의 유목생산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에겐 생산지 생산생태 상 말을 타는 것이 불가피했고 말을 타는 데는 말의 성격이 순록과 비교해 매우 사나워 철제재갈 사용과 무한 개방·무한경쟁 생태지대에서 적이나 늑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마사술(騎馬射術: Horseback archery)이 필수적으로 요청됐으며, 그래서 당연히 견고한 철제 말등자(馬鐙子: Stirrup)도 필수장비로 구비돼야 했다.

그러니까 말을 타면서 비로소 기마 양유목민 중심-주로 농경통합형

1) 주채혁(周采赫), “關於蒙古與韓國人的弓族(Qalqa obog)分族考”, 『多元共存和邊緣的選擇 圖們江學術論壇 2009』(延邊, 延邊大學 亞洲研究中心, 2009. 10. 18), pp. 111~129.

2) ‘탐라도 돌하르방’의 명칭과 개념정의, 존재시기, 기능과 형태 및 계통에 관한 구체적인 논자 나름의 논고 주채혁, “몽골 다리강가 스텝지대의 훈출로와 제주도 돌하르방(弓王)”, 『몽·러할겨레문화론』(서울, 혜안, 2011), pp. 344 ~ 432 참조.

유목제국(Pastoral nomadic empire)이 창업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들이 말을 탄 것은 유라시아가 그 후 수천 년간 유목제국 주도 누리로 1760년 산업혁명 이전까지 일관돼온 획기적인 분기점이 된다 하겠다. 여기서 말이란 아랍 말과 같은 전차를 끄는 말도 T자형 백두대간이나 쓰촨 성(四川省)의 과하마(果下馬) 같은 산악마도 아니고, 바로 몽골말과 같은 스텝 말이다.

유목민이 ‘말을 탄’ 사건은 유목사발전사 상의 일대 분기점이 됐다는 「몽골리안네트워크론」을 주창하는 이민화 교수의 논지는 가장 날카롭게 정곡을 찌른 지적이라고 논지는 본다³⁾. 다만 유목민이 ‘왜 말을 탔느냐’ 하면 그건 팩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를 이룩하기 위한 기동타격 훈련을 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극악하기 이를 데 없는 유목생산생태 속에서 유목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기 수용으로 스텝의 양유목을 해내기 위해서일 뿐이다. 당시로서는 실로 놀라웠을 ‘기마사술’이란 그 부산물일 따름이다. 실로, 스키타이-Chaatang(순록치기)의 기마 양유목 혁명 이후의 기마 Honichin(양치기)의 유목제국 창업과정에서 마침내 팩스 몽골리카가 창출돼온 역사는, 산업혁명 이후에 대영제국을 위시한 해양제국들이 이어서고 마침내 대내외 혁명을 통해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구축돼오고 있는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유목제국사의 발전결과로 마침내 탐라국 탐라도에 몽골제국 국립목마장이 서고 대원제국 세조의 정비 차부이 황후(Čabui xatan)와 토곤티무르칸(Togon Temur Khan: 惠宗)황후 기(奇)Öljei Qutug(하명(皇后)의 직영목마장이 차려졌다⁴⁾. 비유컨대 탐라도는 당시에 몽골제국의 해양 맨해튼프로젝트가 추진되던 해양핵무기제조기지인 셈이었다. 당연히 비유목지대인 탐라도 목마장은 양유목을 위한 보조역으로서의 목마(牧馬) 본질은 이미 상실했다.

그렇지만, 하르누드 운 하칸추르나 베. 수미야바아트르 교수가 탐라도

3) 이민화, “열린 한국, 유라시안 네트워크”, 「전자신문」(카이스트 교수)[칼럼], 2015년 5월 20일.

4) 주채혁, “탐라(耽羅) ‘남원(南元)’정부의 성립배경과 그 의미”, 『몽·려할겨레문화론』(서울, 해안, 2011), pp. 273 ~ 343). 이하 본 논문의 관계 서술은 이 논문을 참고했다.

에 상층몽골 전통문화가 많이 배어나 있다거나 서북변의 다리강가스텝도 내포하는 그들의 고향인 홍산 문화권의 풍정(風情)을 길게 체휼할 수 있는 문화생태가 다분히 상존해 있다는 점을 당시 1990년 탐라도 현지답사 직후의 답론 중에 토로한 사실은 여전히 주목된다⁵⁾. 이런 제반 사실들을 고려해볼 때 논자는, 그 상징 아이콘이 쿠빌라이 대칸의 진영(眞影)을 방불케 하는 탐라도 돌하르방의 조형(祖形)일 수가 있다고 본다⁶⁾.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천착해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논지(論旨)다.

5) 주채혁 “조선(朝鮮)의 순록유목 기원사(起源史) 연구 시론(試論)” 『한국시베리아학보』 4 (한국시베리아학회 2002).

—“순록치기의 홍산문화(紅山文化) 감상법(鑑賞法)—유적유물과 문헌사료를 읽는 시각(視覺)과 시력(視力)”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1집 2호(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07).

—“코리족(弓族) 유목태반 기원사 연구-한국몽골학회의 창립과 몽·한수교”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8권 1호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14.5.

참고로, 유학중 수시로 탐라도 관계 유적지를 답사했던 남한 유학생(강원대) 출신인 보르지기다이 에르테니 바타르 내몽골대 몽골사학과 교수의 고향도 이곳이다. 동녕부, 쌍성총관부와 개경에는 어디도 몽골 조정이나 황족이 직접 간여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탐라도는 예외였다.

6) 1950년 초에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최고사령관의 동상이 뒷날 그 자리에 섰는데, 삼별초를 제주도에서 마침내 모두 토멸하고 고려를 장악하면서 남승과 일본 일대의 해양진출기지를 확보한 총책 쿠빌라이 대칸의 석인상이 조만간에 이곳 해중기지에 서는 것이야 당연할 수도 있다. 법화사(法華寺) 중창기간 (1269~1279년)중인 1274년 5월에 뒷날의 충렬왕과 결혼한 대원제국의 태조라 할 쿠빌라이 대칸의 제국 대장 공주 원찰로 이 절이 중창됐을 수 있다는 박원길, “영락제(永樂帝)와 제주도”, 『제주도연구』(제주도, 제주학회, 2013).의 예리한 지적도 그래서 새삼 주목될만 하다고 하겠다. 물론 파스 몽골리카의 실천적 최종 완성자인 공주의 아버지 ‘쿠빌라이 대칸 원찰(願利)로 중창’된 성격을 갖는다고 본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 제119호,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2).가 더 그 정곡을 찌른 것으로 본다.

II. 본 론

1. 다싱안링(大興安嶺) 스텝의 석궁왕과 탐라도(耽羅都) 돌하르방

논자가 본 논문을 구상케 한 주요한 글은, 뜻밖에도 1925년 당시에 제주도 돌하르방 유적현지답사를 한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玄治郎) 교수의 유적현지답사기였다.

「제주의 성문밖 좌우에는 석인상이 대좌 위에 서 있었다. 높이는 2m. 머리 길이는 몸길이의 삼분의 일 정도. 넓은 편모(編帽)와 같은 갓을 쓰고 이어진 눈썹 아래 둥그런 눈과 커다란 주먹코가 툭 튀어나왔으며 입은 일자(一字)로 다물었다.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익살스러운 얼굴이다. 그 밑으로 유방만 겨우 튀어난 몸뚱이가 있을 뿐. 모난 어깨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진 손끝은 갑자기 꼬부라져 큰 손바닥의 오른쪽은 젓가슴 부근에 있고 왼쪽은 배 부분을 누르고 있다. … 본디 이것들은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새로운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인가 조형(祖形)을 전하는 것이 있다」⁷⁾.

놀라운 통찰력이다. 그는 조선시대의 새로운 창작물인 이들 석상에서 사안(史眼)을 예리하게 번뜩이며 석궁왕-돌하르방의 탄생·생태 적응적 진화·융합과정을 꿰뚫어보고, 탐라도를 그 자장권의 중핵으로 하는 본령이 석궁왕(石弓王)으로 추정되는 이 상징적인 돌하르방의 본꼴을 기어이 찾아내려 하고 있었던 터였다.

7)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玄治郎) 교수의 돌하르방 유적 현지답사보고서 『제주도여행기』 1925. 소수(所收)[논자는 유명한 『조선건축사론』(1930) 저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제자로, 본문은 김인호, “돌통시문화(32) 돌하르방 남방전래설 비판③”, 『월간관광제주』(제주도, 월간관광제주사, 1989. 10), pp. 142~3 재인용]. 그 후의 연구결과 여하보다 우선 그 대담하고도 치밀한 접근시각이 뛰어나 보인다. 특히 석인상 무리 중의 중심 존재를 간파하려 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직·간접적으로 동몽골스텝 소재 석인상 군집지들을 답사한 흔적이 보인다.

[그림 1]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왼쪽 석궁왕 몸통



右上은 근래 신조(新造)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실은, 대원제국 태조 Khubilai(忽必烈) 대칸 → Togon Temur Khan(惠宗) → Bobo(拍拍) 황태자 → Liosiliu(六十奴) 제후왕자 → Elyantemur(愛顔帖木兒) 제후왕자 등으로 하향식 현지역사생태 적응적 진화를 해내려온 돌하르방(石弓王)의 혼융(混融)된 자체역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2016. 3. 27. 오영주 교수 답사 지도, 주채혁 사진꾸미기]

위에서 후지시마 가이지로 교수가 제주도 성문 밖 좌우의 대좌 위에 서 있는 높이가 2m가 넘는 특정 돌하르방을 선택해 관찰했듯이 논자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간 오랜 세월이 걸쳐 나름대로 특정 생태 적응적 진화를 해온 결과체로서의 유물이겠지만 그 어떤 구체적인 유물이 모든 석인상들을 대표하는 칸이나 칸급 최고 귀족을 상징하는 석인상으로 보고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부여해 명명한 석인상을 지칭해 부른 것이, 본래는 돌하르방이라고 불리는 석인상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올리칸 혼출로(人石)의 경우도 주위에 다른 석궁왕상(石弓王像)과 함께 좌정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당연히 목초지나 오보 그리고 궁궐을 둘러싼 성벽이 함께 있는 격식을 갖춘 유적지에 주로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 본다.

제주도 돌하르방문화가 그 나름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는, 질이나 양

및 규모면에서 한국은 물론 지금까지 보고된 세계의 석인상 문화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측면이 있는 것⁸⁾이라면 그런 우수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제주도사 나름의 역사배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고식적인 육지 중심의 제주도로의 전파관이 아니라 도리어 제주도 돌하르방 문화를 핵심으로 하여 번져나가 한반도 육지를 제주도 돌하르방 문화의 자장권 변두리로 내포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육지를 압도하고 세계인류가 우러러볼 만한 그 석인상 문화의 창조주체 또는 창조결과의 수요자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정치적 지위를 가지면서 어느 시대의 제주도사를 주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사 상에서 그런 시대가 언제인가? 13~14세기 몽골-고려사, 더 구체적으로는 몽골-제주도사가 전제되던 때를 빼고 다시 더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고려 수도 개경에는 없는 국영목마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대원제국 태조라 할 쿠빌라이 대칸 정후인 Čabui xatan의 목마장이 있었는데 하면 대원제국 말엽의 사실상의 대원제국 중앙정부의 실권을 틀어쥐고 있었던 고려 공녀출신 토곤티무르칸(Togon Temur Khan: 惠宗)황후 기(奇)Öljei Qutug xatan의 직영목마장도 차려져 있었다. 당시 제주도 원주민 인구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막강한 목호(牧胡) 3000기(騎)가 제주도를 위시한 근해 태평양 해양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었다. 그래서 대원제국이 본지인 몽골스텝으로 철수해 북원(北元)정권⁹⁾을 세우고 있게 되자 고려가 당시의 제주도를 다시 실제로 석권하는데 최영이 고려의 전군을 동원해야 할 정도였다. 요즈음의 핵무기에 비견된다고 할 이런 강력한 「기마무력」 창출을 위한 국방산업기지를, 대원제국이 바로 이곳에 구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쿠빌라이 대칸 당시인 1269~1279년에 중창(重創)된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부지 규모가 2만평에 달하는 법화사(法華寺)의 사지(寺址) 발굴장에서는 1983년에 황궁터(皇宮址)를 상징하는 용봉문(龍鳳紋) 막새기와도 출토됐다. 이는 쿠빌라이 대칸의 탐라도(耽羅都)

8) 주체혁, “몽골 다리강가 스텝지대의 훈출로와 제주도 돌하르방(弓王)”, 『몽-러할겨레문화론』 (서울, 혜안, 2011), p. 418.

9) 『고려사』 「공민왕 세가」 20년조에 ‘북원(北元)’호칭이 특별히 나온다.

해중(海中) 황궁(皇宮) 구상 가능성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¹⁰⁾ 마침내 원말 토곤티무르 칸-기황후가 몽골스텝 본지 수도 카라코룸을 향해 일시 퇴각을 시도했었던 것과 같은 차원의 전략적인 철수도 겸하여 해중의 제주도로 천도를 계획하고, 대원제국 최고의 건축장인 원세(元世)¹¹⁾와 같은 장인들을 제주도에 보내 해중 대원제국 해양황궁을 지을 주춧돌까지 놓았다. 그런 유적이 근래에 실제로 발굴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사』 「외이열전」에서 사상 유례가 없이 고려국 바로 아래인, 일본국 위 자리에 탐라를 국왕이 엄존하는 ‘탐라국’으로 정식으로 기록해 남길 정도였다. 실로 ‘탐라도’(耽羅都)가 실재하는 탐라국은 당시에, 사실상의 태평양 해양 중의 대몽골제국 전진 기지 해양부속국이었다고 하겠다.¹²⁾

10) 『법화사지(法華寺址) 발굴조사보고서』(서울, 명지대박물관, 1983). 이곳 ‘특수건물지’는 원식(元式) 건축물로 원(元) 상도(上都) 궁성건물지(宮城建物址)를 조형(祖形)으로 한 듯하다; 김경주,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살펴 본 원(元)과 제주(濟州)”,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서울, 한국몽골학회, 2016), pp. 151~178.

11) 「고려사」 「공민왕 세가」 18년 9월조에 「...王召元朝樺人元世于濟州...」라 하였다. ‘피난궁궐’이라는 사료상(史料上) 용어의 남발엔 문제가 있다. 1368년 대도(大都)에서의 철수가 바로 대원(大元)의 멸망으로 단정하고 이후를 ‘북원’(北元)이라 명명한 것은 조선조 사관(史官)들의 시각일 뿐이어서다. 바로 2년 뒤인 1370년엔 차카타이 칸국에서 티무르 제국이 치솟아 1405년에는 대도(大都) 수복 원정시도가 감행되기도 하였다. 실은 한반도도 서북면과 이성계의 태생지 동북면은 몽골제국령으로 몽골제국민 태생인 조선 태조였다. 탐라도(耽羅都)도 팍스 몽골리카 체제 하에서 그런 사안(史眼)으로 객관적으로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 몽골과 만주의 중원지배를 협오하여 원·청사를 25사에서 지우지는 않았다. 실은 몽골유목제국(Mongol Pastoral nomadic empire)의 소멸은 1857년 대영제국의 Mughul(Mongol)제국 격멸에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스텝제국(Steppes Empire)과 해양제국(Ocean Empire)의 역사적인 주도권 교체를 함축하는 일대 사건이어서다. 그러나 탐라도 목마장의 몽골말은 이미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 생산혁명의 추동 태반(Steppes)을 벗어난 순전한 전투용 목마 기능만 내포할 뿐이었다. 몽골스텝양의 탐라도 유목은 불가능해서다.

12) 그래서 논자는 본고에서 탐라도(耽羅島)가 아닌 「탐라도(耽羅都)」란 이름으로 굳이 ‘탐라도(도) 석궁왕’을 명명하고 있다. 당시에 강화島(도)를 ‘江(화)都[강도]라 부른 이상으로 막중한 비중을 갖는, 군사·경제 측면에서 보면 실로 팍스 몽골리카 하 제주도의 명실상부한 호칭이라고 하겠다. 1105년 고려 숙종 시에 탐라국 국호가 폐지된 이후에 제주(濟州)라는 명칭을 가졌다가 원대 들어 다시 신라시대의 독립국 탐라국(耽羅國)으로 복원(復元)시켜낸 쿠빌라이 대칸의 대원제국이 당시의 탐라를 고려국 아래 일본국 위에 놓았던 터라, 사실상의 해양 중 ‘탐라국’의 지위를 누리게 했었기 때문이다(『元史』 卷208 「列傳第95 外夷1」에 「高麗·耽羅·日本…耽羅 高麗與國也 世祖既臣服高麗 以耽羅爲南宋·日本衝要 亦注意焉…至元九年…且耽羅國王嘗來朝覲…」이라고 기록돼 있다). 탐라국(耽羅國)이 있으니, 당연히 “탐라도(耽羅都)”가 있어야 한다.

당시의 대도 연경(現 Beijing)이 운하로 태평양과 통해 유목 주도 농경 통합형 유목제국(Pastoral nomadic empire)에서 한 거름 더 나아가 대원제국 태조 쿠빌라이 대칸이 해양제국(Ocean Empire)의 비전까지 꿈꾸었던 터에,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었다고 하겠다. 비록 무한개방·무한경쟁·최후 일인 승자를 겨냥하는 스텝제국의 말과 활의 막강한 군사력에 어깨를 겨룰 같은 성격의 해양생태를 주름잡을 함대와 함포까지를 구체적으로 구상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팩스 아메리카나로 대치되고 있는 오늘날의 글로벌화 누리를 ‘팩스 아메리카나’의 대두를 기다리지 않고 유목몽골제국이 직접 ‘팩스 몽골리카’의 무한 확장에서 해양에 구상했었음에는 틀림없었던 듯하다¹³⁾. 물론 색목인들의 경력과 두뇌에 주로 의거하는 것이기는 했었지만 경제적 막대한 이권 쟁취를 겨냥한 것도 사실인 듯하다. 대원제국말 중앙제정 30~40%가 이미 해상무역에서 충당되고 있었음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같은 몽골 세계칸국의 국영목마장이면서 상당히 서로 닳은 점들도 있는 석인상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하며 그 이름의 형태나 뜻도 Haraadag-Haraavang-하르방(守護者)이나 제주도 「돌하르방」도 하르바흐(Харвах: 활을 쏘다)에서 파생된 낱말-‘Qorči(箭筒士)’-Харваав [Archer, Shooter]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는 Харвах+vang=HarBavang으로 서로 유사성을 보일 수 있는 동몽골 다리강가스텝과 제주도 관계 유물의 상호관련성에 우선 주목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13~14세기 몽골-제주도사를 천착해가는 과정에서, 제주도 돌하르방의 조형(祖形)-본꼴을 그 기능과 형태 문제를 중심으로 추구(追究)해보려 하기 때문이다.

13) 팩스 몽골리카의 후과(後果)로서나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명초 당시로서는 실로 놀라운 대규모 정화의 남해원정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그림 2] Goolikhan Huncholoo



도로노드 아이막 할힌골 슴 송크(紅) 타반(五) 툴로고이(頭) 소재.

실은, 송크(紅) 타반(五) 툴로고이(頭)의 고올리칸(東明聖王) 훈출로(人石: Goolikhan Huncholoo)¹⁴⁾에서 Gooli를 ‘Xop’로 보고 Xop를 활집(箭筒)으로 논자는 해석한다. Xop는 ‘Hym’이라는 활(弓)과 ‘Cym’이라는 화살(矢)을 함께 묶어 부르는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활을 쏜다’는 ‘Харвах’라는 동사가 Xop에서 파생되 나왔을 수 있다는 점. 수미야바아타르 교수의 문체 제기이다¹⁵⁾. 그래서 외몽골인 몽골국에서는 고올리칸이라 부르고 내몽골인 홀룬부이르시에서는 노몬한(弓王: Nomonhan)이라 명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서 보아 고올리칸 훈출로는 활을 쏘는 임금(王)이란 말 뿌리를 갖는 Харвах+vang=HarBavang으로 명명되었을 수 있고, 그것이 탐라도(耽羅都) ‘돌하르방’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됐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고올리칸을 주몽(朱蒙)-Tumen(동명성왕)으로 볼 경우에도 돌로 만든 활의 임금인 ‘석궁왕(石弓王)’이 된다.

14) 1999년 8월 『몽골비사』 몽문환원(蒙文還元) 3대집안 출신 아. 아르다잡 원주민 다구르족 교수(내몽골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수집해둔 것을 논자에게 넘겨준 소중한 자료다. 오녀산성(五女山城)과도 어떤 역사적 맥락이 이어지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15) 2009년 8월 울란바야타르 산사르 논자의 숙소에서의 담론. 티베트어에서도 ‘Xop’를 이와 같이 쓴다.

[그림 3] 쿠빌라이대칸의 용흥지지(龍興之地: 쿠데타 한 땅) 상도(上都) 고성지(古城址) 성벽 밖 석궁왕들(1)



궁성지(宮城址). 1990년 후반 주채혁 촬영, 사진꾸미기; 고올리칸 훈출로.

[그림 4] 상도 고궁터 성벽 밖 석궁왕들(2)



고궁 주춧돌(우하). 1990년 후반 주채혁 촬영, 사진꾸미기 | 169258_192247_4624 강정동 '대궐터' 출토 원형주좌조석(좌하)¹⁶⁾. ***석궁왕들 팔의 자세는 성문 좌·우편 배치여하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차후, 구체적인 별도의 연구를 요한다.

16) 사진제공=(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의소리. 강정동 해양기지: 팍스 몽골리카[Steppes]->팍스 아메리카나[Ocean]로의 접맥을 추정해봄직 하다 하겠다.

한국 몽골학회는 1990년 학회창립 당시에 이미 다싱안링 동서부로 홍산 문화권의 서북부가 고향인 베. 수미야바이아타르 교수와 하르누드 운하칸추루 교수-박원길 박사 사제가 동참해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했던 터였다¹⁷⁾. 그런 과정에서 그 후 제주도 현지의 강영봉 교수와 서재철 기자가 연계돼 이에 동참하면서 같은 화산지대이고, 스텝과 바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무한개방지대로 바람이 거세차며, 기왕에 팍스 몽골리카 하에서 대원제국 국영목마장이 차려졌던 주요 국방산업기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리강가 스텝의 훈출로와 태평양 해양 중의 제주도 돌하르방의 밀착된 역사적 맥락을 미리 짚어보고 이를 천착하는 과제를 제일차 연구주제로 삼고 있었다. 1991년 몽골국에 첫발을 드러놓으면서 첫 답사지로 삼은 유적지가 당연히 훈출로(人石: 사람 돌) 유산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다리강가 대스텝이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한국몽골학회의 현지답사에 따라 손보기 발굴단장이 장덕진 대륙연구소 회장의 후원으로 고을리 돌각담무덤을, 논자도 동참해 비교적 장기간 발굴한 지대도 홍산 문화권 서북변인 바로 여기였다.

논자는 이런 돌하르방의 전형을, 주로 사실상의 대원제국 태조라 할 쿠빌라이 대칸의 용흥지(龍興之地)인 상도(Dolon Nor)의 상도(上都) 구궁(舊宮)의 성벽 정문 좌우로 늘어선 석인상들을 표본으로 삼고 홍산 문화권 서북부에 자라잡고 있는 알탄오보(Altan Oboo)와 드넓은 오름들을 토대로 솟구친 요새 중의 요새 '실링복드'가 더불어 존재하는 유명한 국영목초지 다리강가 대스텝의 석인상 유물들을 참고해 상정하려 한다¹⁸⁾.

17) 당시에 최서면 국제한국학연구원장의 관계 회귀사로 후원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력사전공(1967~1972년) 졸업자이기도 한 베렌레인 우투권루훈테브 초대 주남한대사의 고향이 바로 다리강가스텝이기도 하여 이 연구과제 수행에 크게 관심을 돌려 주기도 했다.

18) 상도(上都)나 운남(雲南)이 모두 '탐라도(耽羅都) 돌하르방'과 밀착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3곳에 다 '대원제국 국영목마장'이 차려져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25) 참조.

[그림 5] 다리강가 목초지의 석궁왕상과 제주도 돌하르방의 첫 상견례



서재철 기자 소촬(所撮) 1991년 8월 중순.

2.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과 유라시아 스텝로드의 사슴돌 - 석궁왕 맥락의 발전·결실

기원전 10세기경 철기를 수용한 Soyon(鮮)-Scythia가 황금빛 기마 양유목화생산혁명을 일으켜 다뉴브~우크라이나 대벌판과 흑해북안 대스텝에 총진격하는 유라시아유목사 상의 일대 혁명사를 썼다. 이어서 기원전 5세기경에는 다싱안링 북부 호눈선원(呼嫩鮮原)에서 만주 대벌판과 몽골 대스텝을 무대로 황금빛 벨트[선비(鮮卑)의 비(卑): 6yc]를 띤 Soyon-선족[鮮(卑)族] 기마사술(騎馬射術) 구사군단(驅使軍團)이 선도하는 같은 유형의 초대형 유목생산혁명을 수행해 발전시켜 내오다가, 마침내 13세기에 들면서 인류사를 진감케 하는 팩스 몽골리카를 탄생시켰다. Goolikhan(東明聖王: Tumen Khan)의 다물도[多勿(Ergune)都]가 바로 이 홀룬부이르 몽골스텝,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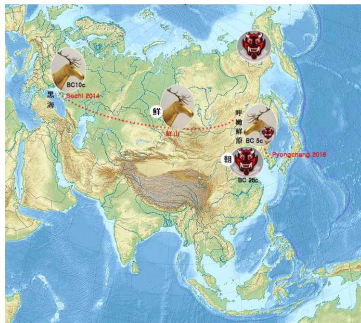
이를 총체적으로 총괄해 언급한다면, 이런 2000여 년간에 걸친 스키타이 혁명의 수행과정에서 그 한 상징물로 등장하는 것이 스텝로드를 따라 출현·발전해온 사슴돌(Deer stones)~돌하르방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키타이혁명의 상징물인 돌하르방은, 스텝제국의 발전과정에서 그 최첨단무력인 '기마사술'의 확산과 함께 스텝제국(Steppes

Empire)의 해양제국(Ocean Empire)화 혁명 지향 추세를 타고 비유목지대인 탐라도에까지 진입케 되어 나름대로 최종적인 결실을 맺어냈다 하겠다.

그렇지만, 특히 그 후 산업혁명 이후 스텝제국의 사양화와 더불어 특이한 생태 적응적 진화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역사적으로 손질돼 달관한 모습으로 살아남게 됐다고 보는 것이다. 논자는 그가 바로 팩스 몽골리카의 완성자이며 그 역사적인 전망의 총체적 기획자인 대원제국 태조 쿠빌라이 대칸의 회화화돼 살아남은 무르익은 표정의 상징석공왕상인 탐라도(耽羅都) 돌하르방이라고 본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아래에 천착해보겠다.

먼저 스키타이 혁명은, 팩스 몽골리카를 창출해내기 위한 기마사술을 조련해내는 일대의 군사적 기동타격훈련이 아니고 주도적인 당시의 주류역사인 유라시아 유목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본질적으로는 단지 종래의 오랜 주류 유목인 공활한 유라시아 툰드라 수림툰드라-타이가를 기반으로 하는 순록유목보다 단위면적당 유목생산력이 8~10배에 달하는 스텝의 기마 양유목 생산을 해내기 위한 철기 수용과 더불어 수행된 획기적인 유목생산 혁명이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결들여 창출된 당시의 최첨단 무력인 기마사술은 어디까지나, 그 혁명의 결과적인 부산물이었다. 위에서 서술한 황금빛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 혁명 과정사를 편의 상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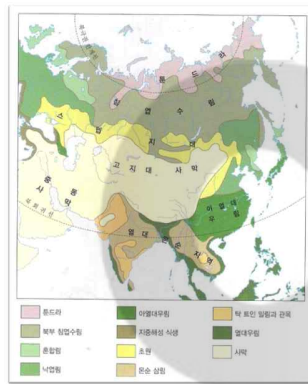
[그림 6] 황금빛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 2000여 년 역사 약술 역사지도



편의상 황금태양 마크는 기마 양유목[忽必烈] 상징이고 붉은태양 마크는 순록유목[蚩尤] 상징으로 삼아보았다. 사진꾸미기; 박윤희 겸師.

보통 우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이 황금빛 기마 양유목혁명이란 스키타이 대유목생산혁명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공활한 북유라시아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수행된 게 결코 아니고 기마 양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텝로드라는 일부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한 오해는 기마 양유목혁명에 선행하는 주류 시원유목 순록유목사에 대한 이해가 극도로 빈약한 유목사 천착의 현실적인 자기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스텝로드는 지도¹⁹⁾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7] 툰드라 수림툰드라(타이가) 이끼(蘚)의 길과 스텝 양초(羊草)의 길



본고에서의 스텝(Steppes)은 농목지대의 목초지 보통 초원 (Grass land) 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유목가축 양의 특수지대 특별한 북방유목초지대다. 대체로 이를 제대로 선별해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기마 양유목혁명-스키타이(鮮)²⁰⁾ 혁명에 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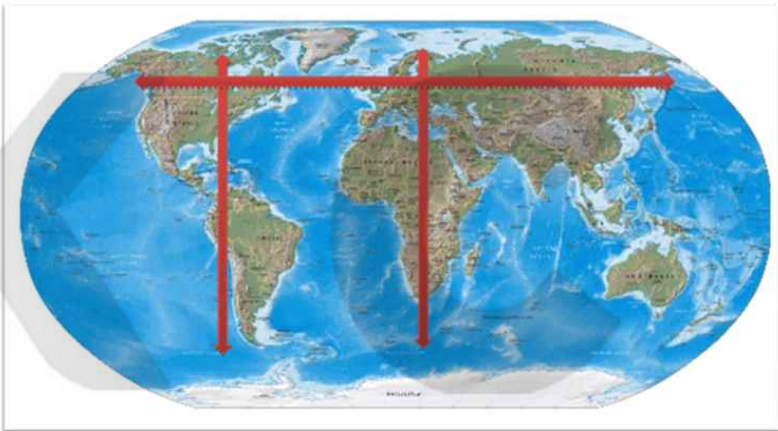
스텝지대는 서부 스텝과 동부 스텝으로 나뉘어진다. 서부 스텝은 다뉴브 대벌판에서 동쪽으로 알타이 산맥까지 약 4,000km에 이르며, 그 폭은 320~950km 정도로 다양하다. 동부 스텝은 알타이 산맥에서 동쪽으로 다싱안링 산맥(大興安嶺山脈) 서남부 홍산 문화권 일대 저쪽까지 약

19) 피터 C. 퍼듀, 『중국의 서진』, 공원국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12), p. 475.

20) 당연히 순록유목지대인 툰드라~수림툰드라와 기마 양유목지대인 스텝은 갈라 보아야 한다.

2,400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서부 스텝에는 우랄산맥의 낮은 산들만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서도 쉽게 건널 수 있다. 그 지역의 강들은 대체로 남쪽의 열대지역으로 흐른다. 서부 스텝의 기후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으로 계절변화가 뚜렷하며, 강수량은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동부 스텝의 기후는 훨씬 혹독하다. 고도가 높아서 더욱 춥고, 비가 자주 오지 않아 목초지가 드물다. 동부 스텝의 유목민들은 역사적으로 중국 북부나 서부 스텝에 있는 보다 나은 방목지를 찾아 이동해왔다.

[그림 8] 팍스 몽골리카의 창출과 북유라시아의 특이한 생태환경



그런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이 남·북축으로 돼 있는데 대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축으로 돼 있어서 등온대(等溫帶)를 이루기 때문에 사람과 기술의 이전이 용이해 유라시아 대륙인이 다른 대륙을 지배하는 주체로 발전했다」 고 지적했다²¹⁾. 논자는 이에 다시 「특히 주로 유목목초지대 툰드라·타이가·스텝으로 형성된 북유라시아는 거대한 [기순록(騎馴鹿)] 순록·기마(騎馬) 양(羊)유목권을 이뤄서, 유목적 기동력과 타격력을 한껏 구사해 인류사 상 최초로 팍스 몽골리카라는 세계경영체제를 창출해낼만큼 역사발전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었다」 고 첨언한다.²²⁾

21)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역, (서울: 문학사상사, 1998).

또 한 가지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아래에 제시되는 최근에 발표된 ‘생명체유전자 지도’²³⁾에서 한반도는 북유라시아 유목지대와 접목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실로 유전체학시대라 할 지금, 이 또한 제주도 돌하르방의 탐라도 정착과정을 방증할 증거가 되는 일대의 근거일 수가 있겠다. 특히 산성해도(山城海島)의 자연요새로 유목무력을 방어하기에 적합한 한반도를 빗겨나 바다로 서로 개방된 탐라도의 개방성도 그러하다고 하겠다.

[그림 9] B G Holt et al.이 최근에 발표한 생명체 유전자 지도



다만 우리가 크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그간 700 여년을 이러한 특이한 생태 적응적 진화를 해오는 동안에 탐라도 돌하르방이 많은 역사적

22) 주채혁, “Chaatang조선(朝鮮)이 유목몽골의 뿌리-순록유목에서 기마 양유목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8권 2호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14.10).

23) B G Holt et al., “Genetic realms and regions of the world”, *Science*, 2013, pp. 74-78. [생명체 유전자 지도]. 특히 위 생명체유전자지도에서 한국과 중·일은 명백히 차별화 된다[이홍규 교수 검색]. 유목·농경지대가 접목되는 홍산문화권의 유목사 조류가 같은 개방지대인 탐라도에 와서 닿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그래서 신용하(慎鏞廈), “탐라국(耽羅國)의 형성과 초기 민족이동”,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pp. 275~314.의 지적대로, 맥고려(狛高麗: Mongol)의 유목맥족권(狛族圈)은 12~13세기 이전부터 이미 스키타이 철기유목혁명 이래로 탐라도와 밀착된 문화 생태적 교류관계권에 들어 있었을 수 있어 보인다. 주채혁, “한민족 북방기원 연구와 유라시아 고원지대 계층분석”, 『한국시베리아연구』 제6집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03).

생태의 다듬질을 당해 성형돼 왔으리라는 사실이다. 원말(元末) 최영의 목호(牧胡) 토벌과정에서는 물론, 원명(元明)-여선(麗鮮) 역성혁명기에 주원장과 이성계의

[그림 10] 다리강가 스텝 석궁왕의 참상



명군[明軍(홍건적), 아니면 청군(淸軍)의 소행일까? 앉은키를 재는 잣대로, 사정 상 우선 논자[당시의 키: 172cm]가 함께 했다. 1991년 8월 서제철 기자 소촬(所撮).

제후차원으로의 쿠빌라이 대칸 격하 합동공작도 매우 교활하고 흑독했다.

[그림 11] 일칸 진영에 고올리칸 석상 합성, 칭기스칸 진영(眞影) 복원 시도



세계적으로 공인돼오고 있는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대칸의 초상은 명초에 궁정화가가 명황제의 제후왕으로 격하시켜 성형화해 『중국역대제후상』에 수록한 위작(僞作)이다²⁴). 1388년 북원황제(北元皇帝) 부자가 시해되자 재빨리 주원장과 이성계는 탐라도에 포로로 잡혀온 쿠빌라이 대칸의 후손인 운남²⁵)왕자 보보를 '남원'(南元)제후 황태자로 탐라국에 봉해 버린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얼룩진 표정들로 조각된 대원제국 태조 쿠빌라이 대칸의 석공왕상-탐라도 돌하르방이라 하겠다. 사진꾸미기; 박윤희 컷터.

24) 그래서 그걸 알아채고 은밀히 몽골인 들은 거짓그림 안 그리는 일한국 화가의 일칸초상에 몽·한공동조상 고올리칸 석상을 융합해 칭기스칸 진영 복원을 모색한 카페트 칭기스칸 초상을, 2차원에서 동시에 남몰래 모시고 있다. 그런 쿠빌라이 대원제국 태조 석공왕-돌하르방도, 법화사지 구궁궐터에 성불(成佛)한 내의 순례객들의 기도치성으로 이내 환생케 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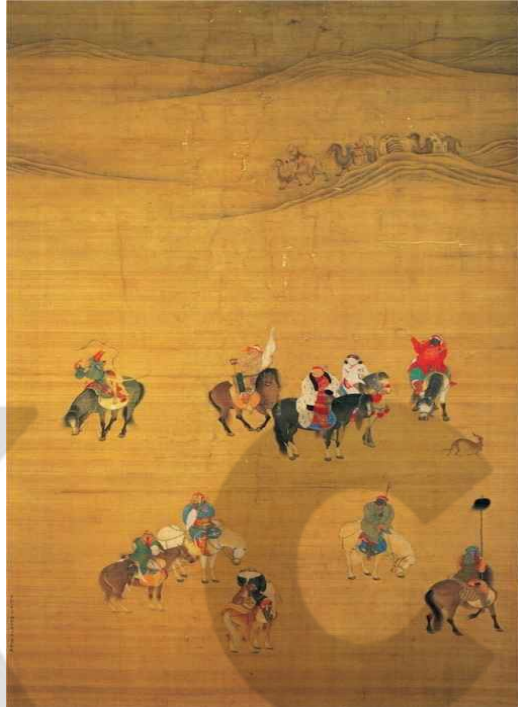
25) 佚名撰, 『史料四編 大元馬政記』(中國 廣文書局 1972), p. 1.에 「...今則牧馬之地 東越耽羅 北踰火里禿麻 西至甘肅 南暨雲南 凡十有四所 又大都 上都...」라고 하여, 탐라도 목마장이 있고 운남도 목마장이 있어서 쿠빌라이 대칸의 후손 양왕(梁王) Baljawarmir 把匝刺瓦兒密)의 아들 Bobo(拍拍)가 탐라로 온 것이 이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특히 산업혁명 이래 해양 제국기에 진입하면서 스키타이 혁명의 총결산이라 할 기마 양치기들의 기마무력을 압살하려는 만청(滿淸)이나 신성로마제국 같은 동·서열강의 모진 핍박²⁶⁾중에서도 코믹한 모습으로 자아상을 성형수술해 오면서까지, 탐라도 한 구석에서 이렇게라도 살아남아 온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의 난숙한 스텝유목사적 열매인 일그러진 아이콘 쿠빌라이 대칸의 환영으로 추정되는 석궁왕상-탐라도 돌하르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至元) 17년(1280년) 쿠빌라이 대칸 당시의 유관도(劉貫道)의 「원세조출렵도」가 살아남아 있는가



26) 예컨대 19세기말 리히드호펜이 ‘실크로드’라고 처음 명명할 적엔 실은 구체적인 유적발굴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동과 서에만 문명이 있고 유목지대인 중간의 스텝로드는 단지 통과하는 길일 뿐 문명이 전무하다는 [Steppe의 경우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거대 강해(江海)와 격리돼 있어서...? 유목문명은 문명이 아니라는 무서운 그의 천박한 아집이 개입한 듯] 가정 하에, 자기의 그런 바람을 투영해 지은 이름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시베리아 스텝로드를 통해 경주까지 뻗은 유목 스키타이 황금문명은 문명이 아니란 말인가? 사안(史眼)으로 보면 당연히 전형적인 관행대로 스텝로드는 ‘모피(毛皮: Fur)의 길’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애초의 동기로만 보면, 이는 당시의 열강 만청(滿淸)[동]과 신성로마제국[서]이 공활한 중간지대 ‘황금빛 스텝로드’의 찬연한 기마 양유목 역사를 지우기 위한 합작품이라 할 ‘실크로드’ 띄우기 연출이라는 인상이 너무나도 짙다. 스키야마 마사야끼(杉山 正明), 『유목민이 본 세계사 -민족과 국경을 넘어』, 이진복 옮김, (서울: 한민글밭 71 학민사, 1999), pp. 22~23. 탐라도(耽羅都) ‘돌하르방’도 그간 이런 어이없는 물결에 휩쓸려온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림 12] 「원세조출렵도(元世祖出獵圖)」



이 '쿠빌라이 대칸 수렵도'에는, 중앙엔 쿠빌라이 대칸과 차부이 황후가 있고 그 양쪽 시위 대엔 남아시아인과 중앙아시아인 기사(騎士)도 동참해 있다. 타이베이 고궁박물관 소장품 182.9X104.1 cm [至元 17 년 대원제국 劉貫道の 작품] www.zjol.com.cn 2007年04月20日 06:20:26 浙江在线新闻网站 1998년; 우표로 발행.

하면, 너무나도 뜻밖에도 그의 제국대장공주 Khudulugh Kelmish와 어린 외손자 Ijil-buqa(뒋날 충선왕)의 당시 인물화가 근래에 한국에서 확인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²⁷⁾. 이질-부카(충선왕)는 바로 개성

27) 이 「고려미인도」는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이 생전에 진품으로 단정했다. 1993년에 희귀한 본 작품에 관한 전문가들 감정소견서의 『한국미술』 「도록」 등재를, 타계한 최 전 관장이 직접 승락했다 [윗 작품은 현재, 감정소견서 작성 동참자인 정명호 전 동국대 교수가 소장(所藏)하고 있음. 좌하의 어린아이 인물상이, 사상 상존 유일본인 바로 '어린아이 이질부카' 충선왕(忠宣王) 원세조 황외손 초상화임을 처음으로 함께 지적해내본 것은 정명호 교수와 논자다].

왕씨 고려왕족을 몽골황족[Mongol royal family: Borjigin; 포(包)나 파(波)로 음사(音寫)]²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한 핵심인물이다.

[그림 13]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와 어린 아들 Ijil-buqa
충선왕 모자 인물화(1280년 경)



좌하가 원세조 황외손 '어린아이 충선왕'이라 하겠다[‘고려미인도’에서 추출; 정명호 교수 제공]. 이 공주가 1274년에 충렬왕과 결혼해 1275년에 그를 장남으로 낳아서다. 그는 요절(夭折)한 남매까지 모두 3남매 중 유일한 생존자인데, 그의 모친 쿠틀룩 켈미쉬는 고려 왕실에 시집온 몽골공주들 중에 유일 하게 직접 자식을 낳은 경우이기도 하다(1280년 경; 73cm X 39.5cm).

28) Borjigin 몽골황족은 본래 Gooli(高句麗)-Boka(渤海)系 Merkid(弓族) 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는 단순한 단일민족 조선민족 한겨레가 아니고 고려국 개성 왕씨 임금+몽골 쿠빌라이 대칸+서아시아 백인 유목민 아수족 피가 두루 융합된 글로벌 코리아 북방몽골로이드 황족혈통을 중생·부활케 한 몽골황외손이다. 게다가 갓난애로 대도 몽골 황궁에 들어가 살다가, 주로 거기서 고려국 임금노릇도 하며 숨을 고르다 그곳에서 임종했으니, 고려 말보다 몽골말이 더 익숙했을 수도 있다. 1950년대 초 6.25전란으로 조선조 임금님들의 영정이 부산에서 거의 죄다 불타버려서 현존 세종로의 세종대왕 동상 존영이 황족 가수 이석의 얼굴을 본따 새로 만든 창작품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근사한 고려국 충선임금의 진귀한 어린 시절 영정이라 하겠다.

역사는 멸절될 듯 하면서도 과학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되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마술을 연출해내게 마련인지도 모른다. 팩스 몽골리카의 실천적 완성자 쿠빌라이 대칸은 팩스 아메리카나 누리에도 강정동 해양기지 법화사지 옛 쿠빌라이 몽골해중궁궐터²⁹⁾에 그 민속신앙화한 아이콘 돌하르방 환영으로 못사람들의 심중에 아직 환생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III. 결 론

돌하르방이란, 여러 명칭개념 해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자는들로 된 Харвax+vang=HarBavang(弓王)으로 본다.

이는 본래, 구체적인 역사인물인 팩스 몽골리카의 실제적인 구현자 대원제국 태조 쿠빌라이 대칸의 스텝제국의 확충 비전이 투영된 해양중몽골궁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탐라도 해양궁성의 아이콘초석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처 못 다 이룬 그의 꿈이 배어난 자아상으로서의 석궁왕상(石弓王像)과 그 환영의 각 시대 시류를 따른 구체적인 구현이, 탐라도 돌하르방의 실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비유목지대인 탐라도 목마장에서의 ‘몽골스텝 양유목’은 한낱 허구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유목의 적지가 아닌 곳에서 스텝양 유목 혁명을 유발하기 위한 목마는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인도의 거대한 칭기즈칸 몽골제국계 이슬람제국 무굴제국(Mughul Empire; 1526~1857)도 끝내 몽골스텝 본지(本地)의 수복을 이루지는 못했다. 본질적으로 목마가 스텝양유목과 관계가 없다면 몽골말의 유목적 전투력도 지속적인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달리 말해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때와 전제조건이 있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라 하겠다.

29) 법화사지(法華寺址)와 쿠빌라이 대칸 구상의 탐라도(耽羅都) 몽골해중궁궐터가 겹치는 것은, 그 조형(祖形)이라 할 상도(上都) 궁궐터나 그 조형의 조형이라 할 카라코룸의 궁궐터와 사원터 및 홀분부이르의 그것들이 전후로 모두 대개 그랬던 듯 한 모델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본다.

원명(元明)~여선(麗鮮) 역성혁명과정이나 산업혁명 이후 만청(滿淸) 제국과 신성로마제국 등의 모진 핍박과 농락 중이라는 특이한 생태에의 적응적 진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코믹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자신을 성형수술해온 터이지만, '석궁왕'-탐라도 돌하르방은 2000여 년에 걸친 철기 수용 이래의 '황금빛 스키타이 기마 양유목혁명'의 총체적 열매로서의 끈질기고 슬기로운 세계사적 차원의 초인적인 난숙한 예술적 용모로 다듬어져 온 터이다. 실로 이 탐라도 석궁왕은 당시의 최첨단 군사 산업 태평양 전진기지 강정동 법화사지(法華寺址) 몽골 해양황궁(海洋皇宮) 궁지(宮址)에 소탈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선 채로, 오늘도 여전히 다소곳이 거세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도리어 못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17년(1280년) 쿠빌라이 대칸 당시의 유관도(劉貫道) 작품 Mongolian Steppes에서의 원세조출렵도(元世祖出獵圖)가 살아남아 있는가 하면 너무나 뜻밖에도 그의 제국대장공주 Khudulugh Kelmish와 어린 외손자 Ijil-buqa(뒷날 충선왕)의 당시, 상존 사상 유일본 어린시절 인물화가 근래에 한국에서 확인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질-부카(충선왕)는 바로 개성 왕씨 고려 왕족을 몽골황족(Mongol royal family: Borjigin)으로 다시 거듭나게 한 핵심인물이다.

팍스 몽골리카 하의 대원제국 태조라 할 쿠빌라이 대칸은 팍스 아메리카나 누리에도, 강정동(江汀洞) 해양기지 법화사 사지(寺址) 옛 쿠빌라이 대칸 몽골해중궁궐터에 그 민속신앙화한 아이콘 돌하르방 환영으로 현지 중생의 심중에 아직 끊임없이 환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문헌사료

- 『고려사』 「공민왕 세가」.
- 『고려미인도』 73cm X 39.5cm. [현재 정명호 전 동국대 교수 소장 중].
- 『원사(元史)』 卷208 「列傳第95 外夷1」.
- 『원세조출렵도(元世祖出獵圖)』-쿠빌라이 대칸 수렵도. [고비사막 쪽 몽골스텝] 타이베이 고궁박물관 소장품 182. 9X104.1 cm [지원(至元) 17 년 대원제국 유관도(劉貫道)의 작품].
佚名撰, 『史料四編 大元馬政記』, 中國: 廣文書局, 1972.

저서

- 스기야마 마사아끼(杉山 正明), 『유목민이 본 세계사 - 민족과 국경을 넘어』, 서울: 학민사, 1999.
- 주채혁, 『몽·려활겨레문화론』, 서울: 혜안, 2011.
- 명지대박물관, 『법화사지(法華寺址) 발굴조사보고서』, 서울 : 명지대 박물관, 1983.
- 피터 C. 퍼듀, 『중국의 서진』, 서울: 도서출판 길, 2012.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1998.

논문

- 김경주, “고고사료(考古資料)로 살펴 본 원(元)과 제주(濟州)”,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몽골학회 2016.
-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제119호, 2002.
- 박원길, “영락제(永樂帝)와 제주도”, 『제주도연구』, 제주학회, 2013.
- 신용하(愼鏞廈), “탐라국(耽羅國)의 형성과 초기 민족이동”,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 지식산업사, 2000.
- 이민화, “열린 한국, 유라시안 네트워크”, 『전자신문』(카이스트 교수)[칼럼], 2015. 05. 20 . 주채혁 “조선(朝鮮)의 순록유목 기원사(起源史) 연구 시론(試論)” 『한국시베리아학보』 4 한국시베리아학회

2002.

— “순록치기의 홍산문화(紅山文化) 감상법(鑑賞法)-유적유물과 문헌 사료를 읽는 시각(視覺)과 시력(視力)”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1집 2호,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07

— “코리족(弓族) 유목태반 기원사 연구-한국몽골학회의 창립과 몽·한수교”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8권 1호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14.5.

주채혁(周采赫), “關於蒙古與韓國人的弓族(Qalqa obog)分族考”, 『多元共存和邊緣的選擇圖們江學術論壇 2009』, 延邊大學 亞洲研究中心, 2009.

주채혁, “탐라(耽羅) ‘남원’(南元)정부의 성립배경과 그 의미”, 『몽·려 활겨레문화론』, 혜안, 2011.

—, “몽골 다리강가 스텝지대의 훈출로와 제주도 돌하르방(弓王)”, 『몽·려 활겨레문화론』, 혜안, 2011.

—, “한민족 북방기원 연구와 유라시아 고원지대 계층분석”, 『한국시베리아연구』 제6집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03.

—, “Chaatang조선(朝鮮)이 유목몽골의 뿌리-순록유목에서 기마 양 유목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8권 2호 배재대학교-한국시베리아 센터, 2014.10.

BB G Holt et al., “Genetic realms and regions of the world”, Science, 2013.

<Abstract>

Dolharvang that is Archery King,
symbolizes the Reincarnation Stone of
Khubilai the Great Khan in Tamrado Island
– A Research on the Focus of the
Scythian Horse Riding – Sheep Nomadizing
Revolution

Chu, Chae-Hyok

1. What is Dolharvang?

In spite of many other name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s, some scholars argue that Dolharvang is a compound noun of Харва x+vang=HarBavang(Archery King).

The scholars also say that Khubilai the Great Khan who was the Founder of the Yuan(元) Empire had a vision of expanding his steppes empire and promoted the Mongolian Palace Project in the Ocean. It is said by the scholars that the Emperor thought Tamrado Island such a cornerstone as Palace on the Ocean.

Therefore the scholars insist that Dolharvang in Tamrado(耽羅都) Island is appreciated as the phantom of Archery King Statue to be the failed dream of Khubilai the Great Khan.

It is said that the Sheep Nomadizing at the Mongolian Steppes was reproduced in Tamrado Island being at the Non-Nomadic Zone is evaluated to be a kind of fiction.

Because the Sheep Nomadizing Revolution at the Steppes could not be realized at any times, in the place where was not proper for the Sheep Nomadizing.

If the Horse Raising was not connected with the Sheep Raising at the Steppes, the fighting power of mongolian horses also were not fulfilled their functions.

And in case of the Mughul Empire(1526~1857) in the Non-Nomadic India, that was a subsidiary political organization belonging to the Empires of Chinghis Khan also did not recover the nomadic sweet home-like land and was disappeared in spite of building the greatest islamic dynasty in indian history.

In other words, it is true that there are times and places for everything according to actors' and actress' abilities.

However, the scholars talk about that the statue of Acheryking is smiling at the site of the Mongolian empire's Ocean Palace where the site of the Beob Hwa Sa (法華寺) Temple was in the Gang Jeong(江汀) village.

2. Who was Khubilai the Great Khan?

At the name of an era, Chih Yuan(至元) 17years in 1280 of Khubilai the Great Khan, an artist named Liu Kuan Tao(劉貫道), who was belonging to palace, drewed the hunting pictures of Khubilai the Great Khan at the Mongolian Steppes and some painters, who was belonging to the ancient Korean state Koryo, drewed portraits of Khubilai the Great Khan's daughter named Khudulugh Kelmish who was a queen of Koryo and of Khubilai the Great Khan's childish grand son, his daughter's son named Ijil-Buqa who was a king of Koryo Chungseonwang(忠宣王). Ijil-Buqa was the core leader of the old Korean kingdom

that was Gooli(高句麗)-Boka(渤海), who restored a family line of his

monarchy to a member of Mongol Royal Family / Borjigin again.

By the way, one royal picture and two royal portraits mentioned above are remained without flaws. After it becomes generally known, the historical story makes many Koreans surprise.

3. How do you apprise the Scythian works of art?

In the Scythian systematic nations, the artistic relics being inherited by the Horse Riding–Sheep Nomadizing Revolution, since receiving the ironware during 2000 years, are touching many persons' heartstrings from Black Sea(黑海) to city of Kyungjoo(慶州) in Korea. [English translation of the summary was a former journalist, historian Kim seon don(金善敦)].

<Key Words>

Harbavang(Archery King), Dolharvang, Black Sea, the ironware, Scythian Horse Riding–Sheep Nomadizing Revolution, Pastoral nomadic empire, Goolikhan Huncholoo, Čabui xatan, Altan Oboo, Dolon Nor, Reincarnation Stone of Khubilai the Great Khan in Tamrado Island, Mongolian Palace Project in the Ocean, the Mongolian Steppes, the Non–Nomadic Zone, the Mughul Empire, Pax Mongolica, the Beob Hwa Sa Temple, the Gang Jeong village, Ijil–Buqa

논문 접수일 : 2016. 11. 20.

논문 심사일 : 2016. 11. 11.

게재 확정일 : 2016. 11. 11.